

TU Graz 교환학생 보고서

전기정보공학부

김민하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2학기에 TU Graz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전기정보공학부 17학번 김민하입니다. 보고서가 좀 늦어졌는데, 기억을 최대한 되짚어봐서 교환학생 가기 전에 알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출국준비

저는 코로나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 교환학생을 떠났기 때문에, 코로나랑 관련된 불안감이 제일 컸습니다. 나라들이 국경을 닫고, 비자 발급도 중단하는 상황이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타고 갈 비행기는 있을까 등등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시국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생활은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다만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코로나 음성 확인서 등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오스트리아의 정책, 경유지의 정책, 그리고 항공사의 정책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갈 때, 올 때 모두 네덜란드 항공사인 KLM을 탔는데, 귀국할 때 비행기를 못 탈 뻔했습니다.

비자 발급은 광화문에 있는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많고 대사관 방문을 예약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자 발급 준비는 적어도 2달 전부터는 하셔야 합니다. 1년 교환학생을 가는 경우는 절차가 더 복잡한데, 공대 주관 교환학생을 가지는 분은 그럴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한국과는 다르게,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고, 업체에서 운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업체들이 존재하는데, TU Graz에서 추천하는 Oead 뿐만 아니라 Wist, Greenbox 등등이 있습니다. 각 업체들은 도시 곳곳에 기숙사 건물이 있고 가격, 시설 등등이 건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Moserhofgasse에 있는 Oead 건물에 살았습니다. 친구들한테 들은 정보 및 제가 가봐서 느낀 점을 정리하자면

Oead: 무난무난, 가격이 좀 있는 편, TU Graz에서 추천해서 그런지 친구들이 많이 살았음. 일주일

에 한번씩 cleaning lady가 청소해줌

-Moserhofgasse: 비쌌, 2인실 위주. 조용하고 제일 신식. 개인적으로 2인실은 부엌이랑 화장실이 너무 작아서 비추천.

-Steyergasse: 5인실 위주, 길가에 있어서 시끄러울 수 있음, 공대 캠퍼스 바로 옆

-Neubaugasse: 강 서쪽에 있어서 학교랑 조금 멀. 기차역이랑 가까움. 절반이상이 스페인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친하고 파티를 많이 함. 열심히 놀고 싶으면 추천, 밤에 조용히 자고 싶으면 비 추천

Wist: Oead보다 저렴한 것으로 기억. 4인실정도. Cleaning lady가 청소해줌. 한 달에 50기간가 와이파이 제한 있음. 그라츠 전역에 군데군데 많음

Greenbox: 저렴한듯. 제가 가본 건물은 좀 어두운 지역에 위치. 현지인들이 많음. 파티를 자주 하긴 하는데 Neubaugasse보다 분위기가 좀 어두움.

독일어

저는 교환학생 가기 전 학기에 서울대학교에서 초급 독일어 1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강신청 기간이 교환학생 합격자 발표보다 먼저였는데, 일단 수강신청을 해 놔습니다. 그라츠에서도 독일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학기 시작 한 달 전에 German Intensive Course가 있습니다. 이걸 Uni Graz에서 주관하는 수업인데, 한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독일어 수업이 있습니다. German Intensive Course를 통해서 ECTS(학점)을 얻을 수 있는데, 추후 얘기하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독일어 공부를 해서 간단한 회화 및 읽기는 가능했고, 공부하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일어를 전혀 몰라도 그라츠에 사는 데에 큰 문제는 없으니 굳이 공부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안 해도 될 듯합니다.

자전거

대중교통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새 자전거는 매우 비싸지만 페이스북 페이지나 willhaben 등에서 중고 자전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싼 자전거는 추천 드리지 않는데, 30유로, 50유로짜리 자전거는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때 다시 팔면 되니까 굳이 싼 자전거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업

TU Graz에 교환학생을 가면 TU Graz에서 제공하는 공대 수업 뿐만 아니라 Uni Graz에 열리는 수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 가서 전공 수업을 많이 듣고 싶지 않아 Uni Graz에서 거시경제학 등 다양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들은 수업들은 서울대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과마다 다를 수 있으니 Uni Graz 수업을 듣고 싶으시면 먼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쇼핑장소

이케아: 그라츠 남쪽에 위치. 자질구레한 것들 사거나 구경하기에 좋음

Murpark: 쇼핑센터

Citypark: 쇼핑센터

Jakomini: 도시 가운데에 있는 광장. 화장품 가게, 옷 가게, 음식점, 잡화점 등 다양한 상점이 존재합니다.

Korea Store: 한인 마트. Panda Asia가 Jakomini에 있는 유명한 아시아 마트인데, 여기보다 한국 제품이 많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추천

공원

Augarten: mur강 옆에 있음. 산책하기 좋습니다.

Stadtpark: augarten보다 크고, 도시 중심부에 위치. 밤에는 어두워서 좀 무섭습니다.

Hilmteich: 예쁜 호수가에 있는 공원입니다.

관광장소

Kunsthau Graz: contemporary art museum. 건물이 독특하게 생겨 어디서든지 눈에 띕니다.

Oper Graz: 오페라 극장. 학생이면 한달에 한번인가 1유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Schlossberg: 언덕 위에 있는 고성. 그라츠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Schloss eggenburg: 도시 서쪽에 있음. 17세기 궁전과 정원, 공작새가 멋있어요.

교외 자연구경

Rettenbachklamm: 그라츠 근처 산. 유럽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더라고요

Schoeckl: 좀 더 교외에 있는 큰 산. 케이블 카 타고 정상 올라갈 수 있어요. 겨울에 가면 예뻐니다.

필요 어플

Graz Mobil: 지하철 및 버스 지도. 구글맵이 대중교통 관련 정보를 잘 못 알려줘서 필요합니다.

Mein Hot (Hofer 유심용): 저는 Hofer에서 산 유심을 사용했기 때문에 썼습니다. 추천

Liferando/Mijam: 배달 어플

Studo: 대학교 어플. 학생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시간표 및 메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OBB: 기차 어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여행 갈 때 사용합니다. 학생 할인 받으세요.

WhatsApp: 유럽에서 자주 쓰이는 채팅 어플로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국에 교환학생을 가,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대부분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대학 생활 중 제일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인 학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고, 그 때 사귀 친구들은 2022년 현재까지도 가끔 연락하며 지냅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에 가서 몇 개월동안 살 수 있는 경험은 교환학생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 주신 공과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